

제목 없음

지난 월요일날 기자회견 시 읽은 입장 표명서입니다.
아직 가해자가 가해사실에 대한 답변을 보내고 있지 않아
(아직 기한이 남았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행 과정을 계속 논의 공간에 올리겠습니다..

대학 내에서 교수 성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 커다란 화두가 되었습니다. 서강대에서부터 동국대, 한국교원대, 서울 시립대 등등의 대학에서 그간 묻혀져 오거나 쉬쉬되어 오기만 했던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불거져나와 많은 여성단체와 학생들이 이와 같은 교수 성폭력 근절을 촉구하고 있으며, 언론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곳에서 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수 성폭력 사건이 공식적으로 신고가 되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성폭력 규정에 의거해 해결될 이 사건이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성폭력 사건을 학교 차원에서 올바르게 해결하는 모범을 보이게 되기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모습들은 대책위를 신뢰하고 말린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고통만 안겨줄 뿐이었습니다. 학생 비상 대책위에서는 그간 두어차례 학교 측에 질의서를 보내었으나 피해자들과 그의 대리인들이 납득할 만한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이며, 절박한 문제인 2차 가해의 문제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보호를 요청했을 때 학교 측에서는 3주가 넘도록 제대로 된 답변조차 해주지 않아 피해자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 교수는 동료 교직원들에게는 피해자에게 납득할만한 사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언론사 인터뷰에서는 가해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측과 가해교수가 이번 성폭력 사건을 공식적이며 정당한 방식으로 조속히 해결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라도 더 이상 사태가 커지는 커지지 않게 하려하며 시간을 끌어 보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 비대위는 단지 사건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K교수 성폭력 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너무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동료 교수를 감싸주기에 급급한 태도라고 비추어질 뿐입니다.

교수 성폭력이 대학 내에서 더욱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은 진리와 교육을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체인 교수가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악용하여 가장 질 나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견딜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며, 이와 동시에 학생들의 정당한 수업권이 이에 의해 침해받고 억압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방식으로 문제제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가 자책과 부끄러움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간의 현실입니다.

대학 내에서 이런 억압적인 환경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오히려 학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피해자들은 단지 자신의 억울함과 분노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사건을 뒤늦게 신고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후배들이며, 이 학교의 주체이기도 한 학생들이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비상 대책위에서는 이미 학교 대책위원장에게 보낸 첫 번째 입장 표명에서 밝힌 대로 3월 2일 개강에 맞춰 여론화를 주도중에 있으며, 이는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기관과 단체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교수 성폭력 사건의 문제점과 올바른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 것이며,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을 통해서 이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는 데 힘써 나갈 것입니다.

학생 비상 대책위는 학교 성폭력 대책위에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해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가해 교수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촉구합니다.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교수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목 없음

2004년 3월 8일 월요일
K교수 성폭력 학생 비상 대책위원회